

정해영 “무조건 달라진다…팀 순위 상승 이끌 것”



황하중 기자
KIA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가다

한화이글스와 연습경기서 첫 실전…1이닝 무실점 호투 필라테스 등 체력 훈련 집중…“아프지 않는 몸 만들 터”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버티며 팀 승리를 지키겠습니다.”

KIA타이거즈 정해영이 올 시즌 반등을 약속했다.

정해영은 지난 1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등판, 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에서 치른 첫 실전이었다.

정해영은 9회말 팀의 여덟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앞서 최지민이 삼진 3개로 무실점 투구를 펼친 가운데 그의 활약이 이어졌다.

상대 박정현과 이진영을 연달아 뜬공으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이도윤은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종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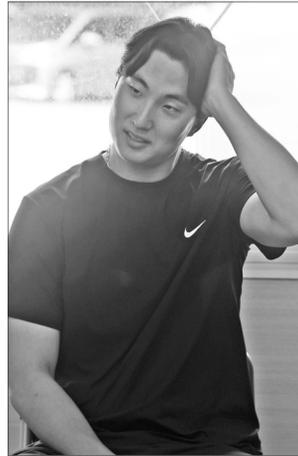
이날 정해영의 최고 구속은 145km. 평균 구속

143km의 패스트볼과 함께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총 11개의 공을 던졌다. 올 시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투구였다.

정해영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했다. 투구했던 것들이 파울이 나서 좋게 생각한다. 다음 경기에서는 로케이션도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 같다”며 “아직 개막까지 3주 정도 남았다. 나머지 경기에서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 이 기간 구속을 더 끌어올리겠다. 시즌 끝날 때까지 아프지 않는 몸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해영은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구원패는 7개로 리그 최다였다. 불펜세이브 역시 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반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구위는 좋았다. 이범호 감독 역시 그의 투구를 보고 “(정)해영이의 구위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좋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시범부터 급격하게



정해영이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에서 연습 경기 첫 실전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흔들렸다. 불펜세이브가 잦아졌고, 순위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결국 후반기 성적은 평균자책점 5.19. 팀의 승리를 지켜줘야 할 마무리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팀 또한 무너졌다. 4위로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8위로 마감했다. 타이거즈 최다 세이브 기록(148세이브) 보유자인 그가 흔들렸던 이유는 있다. 지난 시즌 팽팽한 경기가 많았고, 등판이 잦아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다.

정해영은 “초반에는 프로 데뷔 후 가장 공이

좋았다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개막 초반부터 중반까지 등판이 잦아지면서 체력이 떨어졌고, 결국 커맨드도 흔들렸다”며 “관리를 잘 하면서 버텨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되돌아봤다.

비시즌에는 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몰두했다. 필라테스도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많이 했다. 필라테스도 병행하며 주 4-5일 정도 훈련을 했다”며 “코어를 많이 잡고 싶었다. 훈련량은 예년보다 많아졌다. 작년 이맘때보다 컨디션은 더 좋다”고 말했다.

정해영은 그동안 강력한 구위를 앞세운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사용했다. 지난해부터는 포크볼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는 “포크볼 완성도는 계속 좋아지는 듯하다.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것 같다. 비중은 10~15% 정도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KIA는 올 시즌 불펜 자원을 대거 강화했다. 김범수, 홍건희, 홍민규, 이태양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올 시즌에는 반드시 반등을 이루겠다는 팀의 의지다. 팀스가 두꺼워졌지만, 마무리는 당연히 정해영이다. 그는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정해영은 “무조건 잘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팀도 높은 순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불펜 선수들도 많아지면서 팀 분위기도 좋다”며 “지난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응원 또한 많이 받았다. 올해는 응원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꼭 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jong2@gwangnam.co.kr

KIA 김범수 “강한 체력 장점…80경기 이상 출전 목표”

팀 이적 이후 스프링캠프 합류…첫 실전서 1이닝 무실점 패투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해 팀 승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KIA타이거즈 이적생 김범수가 올 시즌 팀의 상승세를 이끌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

김범수는 지난 2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8회 등판,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 패투를 선보였다.

그는 이날 상대 선투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후속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 김재성을 땅볼로 돌려세운 뒤 양우현에게 다시 한번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쳤다.

이날 김범수의 최고 구속은 143km. 평균 구속 139km의 패스트볼과 함께 커브,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총 18개의 공을 던졌다.

첫 실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남은 캠프 기간 담금질에 열을 올리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김범수는 “첫 투구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다. 준비한 대로 잘 되고 있다. 변화구도 잘 들어갔다”며 “특히 커브 수치가 좋아진 것 같다. 떨어지는 폭을 보면 구중에 대한 감이 잡힌 것 같다. 지난해부터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비중을 높여가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A는 올 시즌에 앞서 불펜 강화를 위해 FA 시장에서 김범수를 3년 20억에 영입했다. 2015년 1차 지명으로 한화이글스에 입단한 김범수는 지난 시즌 73경기에서 나서며 48이닝 동안 2승 2세이브 6홀드 41탈삼진 평균자책점 2.25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큰 기여를 했다.

올 시즌 KIA 소속으로 첫 캠프에 참가한 그는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다.

김범수는 “이제 KIA 선수로 뛰게 됐는데, 지난해 했던 야구를 그대로 하고 싶다”며 “물론 마음처럼 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팀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시즌인 만큼 팀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김범수는 “수치적인 목표는 없다. 다만 지난해 73경기를 뛰었는데, 올해는 80경기 이상을 뛰고 싶다”며 “뛰어 등판하는 투수들이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닝을 맞춰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체력이 확실한 장점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 많이 던지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jong2@gwangnam.co.kr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캐치볼하는 김범수 선수.

광주FC, 새 시즌 맞이 식음료 시설 전면 개편

고정형 푸드부스 3개 ‘먹거리 풍성’…CU와 계약 편의점 3개소 운영도

프로축구 광주FC가 경기장 내 식음료(F&B) 시설을 전면 개편했다.

광주는 올 시즌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경기 F&B 서비스를 구조적으로 개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팬들 사이에서는 F&B 시설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구단은 이를 반영해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우선 광주월드컵경기장 동측 3층 광장에 고정형 ‘푸드부스’를 새롭게 설치한다. 푸드부스에서는 떡



갈비, 감자튀김, 회오리감자, 소시지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할 예정이다. 시즌 및 경기 특성에 따라 메뉴를 유동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기장 내 먹거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판형 매점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CU 편의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해 실내 매장 형태의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한다. 편의점은 서측, 동측, 북측 등 총 3개소에 설치되며, 실제 편의점과 동일한 수준의 상품 구성과 결제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쇼핑 환경과 다양한 상품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FC 관계자는 “그동안 팬들께서 제기해 주신 F&B 관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단순한 경기 관람 공간이 아닌,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하는 복합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시즌 홈 개막전에서 인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송하중 기자

야구 최강 결정전 WBC 오늘 개막

한국 야구, 17년 만에 8강 도전한다

오늘 오후 7시 체코와 1차전 경기 김도영·안현민 홈런 등 맹타 기대

전 세계 야구 축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5일 미국, 일본, 푸에르토리코에서 조별리그의 막을 올린다.

올해 WBC 본선에는 20개 나라가 출전, 4개 조로 나뉘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C조 조별리그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한다. 조별리그 A조 경기는 푸에르토리코에서, B조와 D조 경기는 미국에서 진행된다. A, B, D조 일정은 현지 날짜 6일에 첫 경기를 시작한다.

A조에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가 편성됐고,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이 B조에서 경쟁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더 편편이 있는 D조에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가 들어 있다.

한국이 8강에 오르면 D조 1위 또는 2위 나라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한국은 WBC가 창설된 2006년 3위, 2회 대회인 2009년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냈으나 이후 열린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아시아게임에서는 2010년 광주우 대회부터 2023년 항저우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는 그러나 2021년 도쿄 올림픽 6개 나라 중 4위, 2024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등 국제 대회에서 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가 성인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참사의 주역’만 된 것 같다”며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컸던 선배들의 영광을 이번 대회부터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각오를 다진 이유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WBC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 1월 류지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며 이번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시작하기도 전인 올해 1



월 사이판 훈련을 시작으로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손발을 맞춰 전력 다졌다.

이정후와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합류했고, 한국계 선수들도 3명이나 엔트리에 포함했다.

최근 경기전에서 김도영(KIA 타이거즈), 안현민(KT 위즈) 등 2003년생 젊은 타자들의 파괴력이 돋보

인 것도 한국의 8강 진출에 청신호다.

다만 문동주(한화 이글스), 윌태인(삼성 라이온즈) 등 주축 투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마무리를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 한국계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의 부상 결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빅 리거’ 김서현(애들랜트 브레이브스)과 송성민(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부상으로 인한 불참도 마찬가지다.

같은 조에서 경쟁할 팀들의 전력 역시 만만치 않다.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이상 다저스) 등 경쟁한 ‘월드 스타’들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꼽힌다.

한국은 5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C조 최약체로 평가되는 체코와 1차전을 치르고, 7일 같은 시간 일본과 2차전을 벌인다.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만전은 8일 정오에 시작한다.

7일 야간 경기 후 8일 곧바로 낮 경기로 대만을 상대하는 일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조 2위 안에 들면 선수들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8강이 열리는 미국으로 이동한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평가전에서 인터뷰를 치고 ‘비행기 세리머니’를 한 이유가 바로 ‘미국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8강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나눠 열리며 한국이 속한 C조는 8강부터 모든 일정을 마이애미에서 치른다. 연합뉴스